

# (가칭) 한국산업간호학회

## 창립취지문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지원 속에서 각종 산업이 발달해 왔으며, 이미 산업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천만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놀랄만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우리 산업장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름아닌 고도로 산업화된 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제활동을 위한 노동력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건강이, 바로 산업장내의 각종 유해물질이나 불충분한 설비 시설 등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학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새로운 인식과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보건 분야는 1962년도 가톨릭 의과대학 부설 산업의학연구소의 창립을 출발로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특히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연구와 기술 개발로 근로자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지난 30여년간 산업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사업을 지원해 온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역할은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보건의 중요성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음에 부응하여 ‘88 대한산업의학회’와 ‘90 한국산업위생학회’가 창립되어 근로자의 건강과 그 환경관리를 위한 이론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간호사들은 그 동안에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각기 체계화 되지 못한 산업장에서의 보건활동을 펴 왔으나,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1987년도 전국적인 규모의 산업간호사회를 창립시켰습니다. 이는 간호사들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한 산업현장에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몇몇 사람이 모여 바로 지금이 간호에 종사하는 모든 학자와 실무자들이 산업간호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금번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산업간호사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었으므로, 산업간호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산업간호 이론을 개발하는 작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학문적 연구개발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더욱 다듬어질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보다 유익한 간호활동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장 내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환자로서의 근로자 건강, 지역주민으로서의 근로자 건강이라는 측면에서의 모든 간호활동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간호이론으로 개발되어, 간호 교육과 실무에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과제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산업간호학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근로자들의 건강과 한국간호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간호인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990. 8.

창립준비위원장 김 화 중